

“도심속 자연에서 새싹불자 키워요”

경주 불국사, 불국유치원·성림어린이집 신축



성림어린이집 신축 회향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과 범주사 회주 혜정 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등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경주 불국사가 동천동에 불국어린이 집과 성림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여, 9월 6일 신축 회향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범장, 범주사 회주 혜정, 불국사 회주 성태,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등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종단의 지속적인 숙원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2개동을 장엄하게 세운 원력보살 종상 스님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축하했다.

불국유치원과 성림어린이집 신축건물은 2,846평의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96평, 435평 규모로 각각 나란히 건립했으며, 유치원은 8학급에 정원 240명, 어린이집은 8학급에 정원 165명 수용 가능한 규모다.

신축 불국유치원과 성림어린이집은 규모도 크지만 시설도 최첨단이다. 멀티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최첨단 컴퓨터실과 예절 및 인성교육에 필수적인 다도실을 갖추고, 유치원 지하에는 식당이 별도로 마련되어 교실에서 점심을 먹는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그러나 불국유치원이 자랑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천혜의 자연환경. 불국유치원은 경주 동천도 소금강산 자락에 위치해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최고의 자연생태적 교

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1984년 불국사 부설 성견유아원으로 시작하여 23회까지 졸업생 1,800여명을 배출시키며 명문 유치원으로 성장한 불국유치원과 97년 3학급으로 시작한 성림어린이집은 그동안 장소가 협소해지고 교육여건이 낙후되자 2003년 4월 공사를 시작해 이날 낙성법회를 가졌다.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도심유치원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풍부한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불국유치원 박미정 원장은 “이곳은 마당도 넓고, 벌이랑 나비도 많아서 텃밭가꾸기, 곤충관찰하기 등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놀고 배우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범주사회주 혜정 스님은 어린이들을 위해 화품 280여점을 선물했다.

경주=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北·업체·실직자 모두 돕는 길

참여불교운동본부 ‘北어린이에 신발 보내기’ 전개

부산 불자들의 따뜻한 사랑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총)는 9월 1차 1천 켈레 조물련에 전달되는 비용이다. 참여불교운동본부

지 황정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동일신발지원단’을 발족시켰다. 200명 정도의 단원들로 구성된 동일신발지원단은 앞으로 북한에 신발보내기 운동 관련 홍보사 안이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데에도 주력하게 된다. 특히 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월 2천원 후원 계좌(농협 942-17-006265 예금주:참여불교운동본부) 1만 명 모으기 운동도 전개한다. 2천원은 불자 한사람이 한 켈레의 신발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비용이다.

신발 지원을 마다 하고 신발을 선택한 것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신발 산업이라는 것에 착안한 것.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신발 보내기에 필요한 비용, 2억 4천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 캠페인과 부산 지역 신발업체의 후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특히 부실한 신발업체를 철거하고 노인이나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직접 신발을 만드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자체 생산 라인을 갖추면 북한 어린이들도 돕고, 부실업체도 살리고, 부산의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사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북한에 신발보내기 운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산 황정사 주

지 황정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동일신발지원단’을 발족시켰다. 200명 정도의 단원들로 구성된 동일신발지원단은 앞으로 북한에 신발보내기 운동 관련 홍보사 안이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데에도 주력하게 된다. 특히 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월 2천원 후원 계좌(농협 942-17-006265 예금주:참여불교운동본부) 1만 명 모으기 운동도 전개한다. 2천원은 불자 한사람이 한 켈레의 신발을 북한 어린이에게 전달하게 되는 비용이다. 참여불교운동본부

천미희 기자 micheon@buddhapia.com

조선초기 왕실 제작 경전 발견

동화사에서 임진왜란 전 조선초기 것으로 보이는 경전과 고서가 다량 발견됐다.

동화사주지 지성은 9월 6일 대웅전 개보수를 위해 부처님을 이운하는 과정에서 높이 1m 가량의 아미타불상과 약 사여래불상에서 다량의 북장 유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북장 유물은 조선 태종때 제작된 <묘법연화경> 2종류와 <법화경> <지장본> ‘지장본원경’ ‘법화경’ 등 다량 원경 <능엄경>

지은자사경) 또한 매우 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장유물을 감정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인 경북대학교 문경현 명예교수는 “조선초기 고서적들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상당수 불에 타 소실된 상황에서 조선초기 제작된 경전들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문화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사는 발견된 유물들을 동화 <화엄경> <다라니경> 등 불경 80여권, 구리로 된 사각 사리함에 봉안된 사리, 불자들의 발원이 담긴 사경 등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양도 방대했다.

이 가운데 <지장본원경>은 조선초기 왕실에서 세종·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책 표지가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 호화로우며, 보관상태가 양호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토리 톨로 붙들인 종이에 은가루로 <대보적경>을 쓴 <상

사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고 문화재 관계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동화사는 정확한 감정이 이뤄지는 대로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 지정문화재 10호로 지정된 동화사 대웅전은 조선후기 1727년(영조 3)에서 1732년(영조 8)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둥이 침하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 지난 6월부터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배지선 기자

불교에서 ‘해법’ 찾자

(사)불국도, 노인학대 예방 워크숍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불국도가 마련한 워크숍 현장.

아들이나 딸 혹은 며느리에게 매를 맞거나 폭언, 무시 등 학대받은 노인들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사회복지법인 불국도(이사장 혜총) 주최로 마련됐다.

9월 8일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강당에서 열린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발전방향 및

운영 전략 워크숍’은 보건복지부가 올 9월 부터 전국에 16개소의 노인학대 예방센터 설치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특히 부산시로부터 학대받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쉼터를 운영해온 불국도가 운영 경험을 토대로 노인학대의 실상을 알리고 그 예방과 대책을 모색해나가는 자리에서 의미를 더했다.

원기연 부산여자대학 노인학대 지킴이 봉사단 단장, 박홍재 부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혜총 스님은 “사람은 태어나면 인간이 되기 때문에 노인학대가 바로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노인학대 문제 예방 및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연구발표 및 토론에서는 황인옥 부산여자대학 교수, 윤기혁 부산시 노인쉼터 소장, 박남철 ISO 9001 심사원 등이 ‘노인학대 예방센터 도입에 따른 발전방안’과 ‘노인학대 예방 실천 운영 사례’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효율적 운영 전략’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천미희 기자

‘구포왜성·만덕사지 복원하자’

낙동문화원, 천도재·학술강연

부산 만덕사주지 혜명은 9월 3일 구포사에서 임진왜란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와 구포왜성 및 만덕사지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부산북구 낙동문화원(원장 백이성)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문화재 기념물로 향토역사의 상징물인 구포왜성과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만덕사지의 역사적 관련성을 검토하는 학술행사와 천도재 의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백이성 부산북구 낙동문화원장은 ‘구포왜성과 만덕사지의 향토사 재조명’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임시법당을 만들고 3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촉구하면서 만덕사지 역사적 뿌리 찾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 앞으로 만덕사지 복원을 위한 불교계와 학계의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석암장학회 이사장 정런 스님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학급 지급식을 열고 박신호(학생여고), 최웅열(부산고) 등 고등학생 7명, 김지혜(고려대), 도신 스님(중앙승가대) 등 대학생 14명에게 총 1천3백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 도농농 서명운동 본격화

도농농소속 백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부산시민행동이 본격 가동됐다.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부산고) 등 고등학생 7명, 김지혜(고려대), 도신 스님(중앙승가대) 등 대학생 14명에게 총 1천3백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전생, 사주팔자, 빙의 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四柱八字)는 빙의(憑依)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는 강의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금번 13차 전생, 빙의 워크샵을 통해 그 신비스러운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본 교육내용은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안내자료와 자료 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발송비 5000원)

빙의 치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빙의 진단법 → 확인 → 영가와와 대화 → 영가전도 → 천도확인 → 재집진 방지 치유법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 대화를 통한 원격제정 천도법 사례 중심의 시청각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
전생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깊은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 명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제요"..... 전생에 남자를 많이 만난 여자는 이생에서 내 남편 하나 없는 기생, 소실 팔자이니 이런 사주 "관살태왕자요".....
최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면학 총론, 최면의 원리와 이해,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명상법 등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
 대전역에서 택시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 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 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빙의장애현상 빙의된 사람의 경우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심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지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원인 모를 불일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야 한다.

정통 명리학 30여년 동안 많은 역학자를 배출한 고은(高恩) 이화정 선생 직접 강의!!
 故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을 바탕으로 "생극제화"의 원리를 아주 쉽게 지도하여 초보자라도 명쾌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육과정 및 일정 각 과정별 교재 및 실습 테이프 제공

과정명	교육비	교육시간
빙의치유·명리학 과정	100만원	총 48시간
전생·빙의·명리학 과정	200만원	총 63시간

♣10월 6일 개강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8시까지) 7회 과정



특 전 이수중 수여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출장강의 가능)
 [기타문의] 초청 강연 및 개인문제 상담 별도 문의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대野 임재형 상담학 박사
 한국생활치료면담학회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교육치료학회 부회장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속으로,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및 외주 대학에서 강의